

주간 통일정세

2017-16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4.15	北 김정은, 김일성 생일 맞아 금수산궁전 참배(연합뉴스)
		北 김정은, 태양절에 장성 승진인사...리영길·서흥찬 대장 진급(연합뉴스)
		'숙청설' 北 김원홍 국가보위상 견제...대장 계급(연합뉴스)
		위상 높아진 北 최룡해, 태양절 열병식서 연설(연합뉴스)
		이틀 만에 또 등장한 北 김여정...통제 벗어난 '핵심실세'(연합뉴스)
		北, 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 시작...김정은 참석(연합뉴스)
		달라진 北 열병식 풍경...군단장들 열병부대 인솔(연합뉴스)
		北, 김일성 생일에 열병식...신형 ICBM으로 대미 무력시위(연합뉴스)
	4.16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몰도바 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회담(연합뉴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만수대의사당 방문 대표단 담화(연합뉴스)
		김영남, 몰도바 대표단과 담화(연합뉴스)
		김일성 105번째 생일 경축연회·야회(연합뉴스)
		김일성 생일 105돌 축하 청년·학생들 야회 개최(연합뉴스)
	4.17	김정은, 열병식 참가자들과 축하공연 관람(연합뉴스)
		北 김정은, 아사드에 또 축전 "美의 침략행위 규탄"(연합뉴스)
		북핵개발 실세 리병철 '육군대장' 칭호...군복차림 등장(연합뉴스)
		北 김정은, 태양절 앞두고 일부 장성 인사 단행(연합뉴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짐바브웨 대통령에 축전(연합뉴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멕시코 노동당 대표단 담화(연합뉴스)
		김일성 생일 기념 해외동포·연고자 연회(연합뉴스)
		김일성 생일 기념 봄 인민예술축전 폐막(연합뉴스)
	4.18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창립 70돌 보고회(연합뉴스)
		北 외무성 부상 "핵무기 허구 아니다...6자회담은 탄생 때 목 졸려"(연합뉴스)
	4.19	北, 김일성 '유훈' 강조하며 "통일 대통령로 열어야"(연합뉴스)
경제	4.17	중국인, 북한 관광에 '짜늘한' 반응...지난달부터 급감(연합뉴스)
		베이징에 본사 둔 고려투어 "북한관광 문제없다"(연합뉴스)
	4.18	해운제재로 바닷길 막힌 北 "새 무역선 '자력호' 출항"(연합뉴스)
		말레이 이민당국 "불법체류 북한인 296명 자수...곧 송환"(연합뉴스)

사회 문화	4.19	“北서 6·25 참전 미군 인식표 거래…1천달러 호가”(연합뉴스)
		“중국행 北선박, 평소 절반으로 줄어…‘석탄금수’ 영향”(연합뉴스)
	4.20	“제재대상 北 은행, 연 7% 이상 신탁수익률 제시”(연합뉴스)
	4.15	北, 평양 여명거리 살림집 이용허가증 학자들에 우선권(연합뉴스)
		北, ‘최대 명절’ 김일성 생일 맞아 대대적 축제(연합뉴스)
	4.16	北 노동신문, 열병식 소식 포함 ‘태양절’ 특집판 발행(연합뉴스)
		북한 봉수교회·칠골교회, 부활절 예배 진행(연합뉴스)
		북한 순천화력발전소, 대출력 고압전동기 관련 자체 기술 개발(연합뉴스)
		김일성 생일 기념 제22차 ‘태양절 요리축전’ 개최(연합뉴스)
	4.17	北, 태양절 지나자마자 내년 국제행사 홍보…참가자 모집(연합뉴스)
		김일성 생일 기념 영화·TV극 공모전 당선작 선정(연합뉴스)
		北, 사관학교 명칭서 ‘결가지’ 지우고 빨치산 이름 붙여(연합뉴스)
		北, 3金 우상화 국제행사 준비 박차…평양서 협의회(연합뉴스)
	4.18	“北, ‘반미 정신교육’ 본격화…신천박물관 참관 강요”(연합뉴스)
		北, 여명거리 입주 시작…김일성대 교수 먼저(연합뉴스)
		北 평양장충성당에서 부활절 특별 기도모임 개최(연합뉴스)
	4.19	“北, 두만강 150m 이내 접근 제한…주민 불편 커”(연합뉴스)
		北 김일성종합대 저작권관리기구 신설…“세계 흐름 동참”(연합뉴스)
	4.20	“北, ‘태양절’ 당일 휴대전화 서비스 최소한 두 번 차단”(연합뉴스)
	4.21	“北, 성인 식량배급 하루 400g으로 늘려…유엔권장량엔 부족”(연합뉴스)
외교 국방		美 트럼프 정부 ‘최고의 압박과 개입’ 대북전략 수립(연합뉴스)
		北, 트럼프 정부 거명하며 “전쟁 두렵지 않아” 핵능력 과시(연합뉴스)
	4.15	북·미 긴장 와중 中고위인사들 北대사관 연회에 출동(연합뉴스)
		北, 태양절 열병식서 ‘신형 ICBM’ 추정 미사일 첫 공개(연합뉴스)
		北, 열병식서 ‘ICBM 3중세트’ 공개…트럼프에 항전 메시지(연합뉴스)
	4.16	中, 북한 관광 전면 중단…北 열병식에 고위직 불참(연합뉴스)
		英 외무부, 北미사일 도발에 “몹시 우려…예의주시할 것”(연합뉴스)
		합참 “北, 함남 신포일대서 미사일 발사시도…실패”(연합뉴스)
	4.17	北, 칼빈슨호 재전개에 “美 선제타격 기도 실천단계”(연합뉴스)
		펜스 “北, 트럼프와 미군의 힘 시험말라…모든 옵션 테이블에”(연합뉴스)
		中 관영매체, 北에 또 경고 “6차 핵실험하면 원유공급 중단”(연합뉴스)
		中, 우다웨이 방북설에 “북핵문제 관련 북한과 긴밀 소통”(연합뉴스)
		北 송일호, 日언론에 “납치문제에 아무도 관심 없어”(연합뉴스)
		北, 특수작전군 창설 확인…한미 ‘참수작전’ 맞대응 카드(연합뉴스)

		北, 특수작전군 개인화기로 98식 보충 보급(연합뉴스)
		유엔 北차석대사 “美 원하는 어떤 전쟁모드에도 대응 준비”(연합뉴스)
		백악관 “대북 레드라인 없다…트럼프 필요시 단호한 행동 취할 것”(연합뉴스)
		北 외교라인 대외선전 총력전…‘전면전·핵 선제공격’ 주장(연합뉴스)
4.18		유엔 北차석대사 “한반도 문제해결 전제는 美 적대정책 철회”(연합뉴스)
		北 “미사일 계획 따라 계속 시험…美공격계획엔 선제 핵공격”(연합뉴스)
		北 매체 “타산 밝은 트럼프, 현실 똑바로 보고 선택해야”(연합뉴스)
		주러 北공사 “美와 핵전쟁 준비돼 있다”(연합뉴스)
		中, 北미사일 운반차량 중국제 의혹에 “대북제재 엄격이행한다”(연합뉴스)
		美부통령 “北, 우리 뜻 알아채는 것 고무적…잘 처신하라”(연합뉴스)
4.19		트럼프 “김정은이 얼마나 평화 원하는지가 관건”(연합뉴스)
		北, 日언론에 해방 후 잔류일본인 매장지 공개…대화재개 모색(연합뉴스)
		말레이 부총리 “북한에 대사파견 여부 확정 안 돼…논의 예정”(연합뉴스)
		美,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틸러슨 “모든 옵션 심사 중”(연합뉴스)
		北 “미국의 ‘선제타격 운운’ 추태, 사회주의 승리 증거”(연합뉴스)
4.20		北 “美 항공모함, 가까이 올수록 섬멸적 타격 효과 커져”(연합뉴스)
		북한, 日언론에 ‘북송 일본인 부인’ 단체 소개…“대화재개 의도”(연합뉴스)
		北, 소녀상 철거시도 일본에 “정치난쟁이” 비난(연합뉴스)
		갈수록 끈끈해지는 김정은-아사드 ‘편지 동맹’(연합뉴스)
4.21		北, 美 ‘주피터 계획’ 강행에 “불마당질” 위협(연합뉴스)
		유엔보고서 “北 잠수함, 복수의 SLBM 발사 가능할 듯”(연합뉴스)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4.15	김일성 생일 105돌 기념 열병식 참석	-	
4.16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4.17	김일성 생일 105돌 기념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관람	황병서, 리명수, 박영식, 리영길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7. 4. 15.

■ 北 김정은, 김일성 생일 맞아 금수산궁전 참배(연합뉴스)

- 조선중앙TV는 15일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고 보도함.
- 김정은은 김일성 영생홀에 들어가 할아버지에게 인사드린 뒤 훈장 보존실, 사적 열차·승용차 보존실을 참관했다고 방송은 보도함.
- 김정은은 이어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한 뒤 역시 각종 보존실을 둘러봄.

2017. 4. 17.

■ 김정은, 열병식 참가자들과 축하공연 관람(연합뉴스)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6일 김일성 주석 생일(15일·태양절) 경축 열병식 참가자들을 위한 공훈국가합창단 축하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7일 보도함.
- 평양에서 열린 이날 공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리영길 총참모부 작전총국장 등이 참석함.
- 공연이 끝나자 김정은과 전체 출연자, 열병식 참가자들은 만세를 외쳤다고 방송은 보도함.

■ 北김정은, 아사드에 또 축전 “美의 침략행위 규탄”(연합뉴스)

- 김정은은 17일 시리아 독립 71주년을 기념해 아사드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면서 “이 기회에 최근 귀국에 대한 미국의 난폭한 침략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정은은 “시리아 정부와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다시 한 번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한다”고 축전에 밝힘.
- 김정은은 시리아의 독립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예속’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역사적인 ‘사변’이었다며 “오늘도 귀국 정부와 인민은...(중략)...온갖 적대 세력들의 침략과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며 나라의 독립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

나가고 있다”고 기술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4. 15.

■ 北 김정은, 태양절에 장성 승진인사…리영길·서흥찬 대장 진급(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105주년 생일을 맞아 리영길 총참모부 작전총국장을 비롯한 군 장성급 18명에 대해 승진인사를 단행함.
- 김정은 명령에 따라 리영길 총참모부 작전총국장과 서흥찬 인민무력성 제1부상 겸 후방총국장이 육군 대장으로 한 계급 승진했으며, 4군단의 리성국 군단장을 비롯해 조남진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김영복 11군단장, 김명남 제91수도방위군단장과 위성일·방두섭·양동훈·장길성·송준설·김철규 등 10명이 육군 상장으로 진급됨.
- 여명거리 건설 등을 주도한 마원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과 무기개발 분야 핵심 관계자인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에게는 육군 중장(별 2개) 칭호가 부여됐으며, 이 밖에 리영철 4군단 정치위원과 림광일 전 작전총국장도 중장으로 진급함.

■ ‘숙청설’ 北 김원홍 국가보위상 건재…대장 계급(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TV가 15일 방영한 북한군 열병식 생중계 영상에서 김원홍이 김일성광장 주석단에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됨.
- 김원홍은 최부일 인민보안상 바로 옆에 서 있었으며 김원홍 다음 자리에 윤정린 호위사령관이 착석해 있었음.
- 김원홍이 서 있는 위치로 미뤄 국가보위상 직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김원홍은 대장(별 4개) 계급장을 달고 있었음.

■ 위상 높아진 北 최룡해, 태양절 열병식서 연설(연합뉴스)

- 최룡해 부위원장은 15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된 열병식 중간에 축하연설을 통해 "미국이 무모한 도발을 걸어온다면 우리 혁명무력은 즉시 섬멸적 타격을 가할 것이며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핵전쟁에는 우리식의 핵 타격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발언함.
- 최룡해는 지난 1월 초 니카라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고 귀국할 때 모두 공항에서 명예위병대를 사열했는데,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을 제

외하고 공식적으로 의장대를 사열한 인물은 최룡해가 유일함.

- 또 최룡해는 지난 1월 북한의 대표적 생산시설인 황해제철연합기업소를 '현지요해'한 것으로 북한 매체에 보도됐는데, 현지요해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현지지도'보다 등급이 낮지만, 과거 노동당 비서에 해당하는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9명 가운데 현지요해가 보도된 것 역시 최룡해가 유일함.

■ 이들 만에 또 등장한 北 김여정…통제 벗어난 '핵심실세'(연합뉴스)

-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을 9차례 수행했던 김여정은 올해 들어 공개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 13일 여명거리 준공식에 이어 15일 북한의 최대명절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 기념 열병식에 모습을 보임.
- 김여정은 열병식이 시작되자 행사 안내용 책자로 보이는 화첩을 직접 들고 와 김정은 앞에 펼쳐주기도 했으며, 김여정이 행사 종료 후 이동하는 김정은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다가가 귀엣말로 논의하는 장면도 공개됨.

2017. 4. 16.

■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몰도바 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회담(연합뉴스)

-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그리고레 노바크 몰도바 사회주의자당 전국 이사회 부위원장과 16일 평양에서 회담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회담에 이어 북한 노동당과 몰도바 사회주의자당 사이의 협정이 체결됐다고 통신은 보도함.
- 이 자리에서 그리고레 노바크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보내는 선물을 리수용에게 전달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만수대의사당 방문 대표단 담화(연합뉴스)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6일 만수대의사당을 방문한 여러 나라 대표단 단장을 만나 담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영남, 몰도바 대표단과 담화(연합뉴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그리고레 노바크 전국이사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몰도바 사회주의자당 대표단을 만나 담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2017. 4. 17.

■ 북핵개발 실세 리병철 ‘육군대장’ 칭호…군복차림 등장(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체제의 핵심 실세로 각종 전략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리병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최근 육군 대장 칭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17일 확인됨.
- 1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5면에 실린 김일성 생일 105주년 기념 열병식(15일 개최) 기사에 “전략군로켓중대들이 리병철 육군 대장, 김락겸 전략군 대장의 지휘차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였다”라고 언급됨.
- 리병철은 같은 날 노동신문 2면에 게재된 김정은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사진에 서도 대장 계급장이 달린 것으로 보이는 군복을 입고 참석한 모습이 확인됨.

■ 北 김정은, 태양절 앞두고 일부 장성 인사 단행(연합뉴스)

-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15일, 태양절)을 앞두고 일부 북한군 지휘관들의 진급 및 강등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됨.
-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 15일 열병식을 생중계하면서 소장(별 1개)이었던 주성남 제425 훈련소장을 육군 중장(별 2개)으로 호명했고, 소장이었던 방두섭 제2군단장과 육군 중장이었던 양동훈 제5군단장은 열병식에서 육군 상장 계급장을 달고 대열을 인솔했다고 보도함.
- 이번 열병식에서 신설된 특수작전군 사령관으로 확인된 김영복은 소장에서 상장(별 3개)으로 특진했으나, 김책항공군대학 열병부대를 인솔한 최영호 전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도 대장에서 상장으로 1계급 강등됐고, 박정천 군 포병 국장도 상장에서 1계급 하향한 중장이 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짐바브웨 대통령에 축전(연합뉴스)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짐바브웨 독립 37주년을 기념해 지난 12일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멕시코 노동당 대표단 담화(연합뉴스)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7일 만수대의사당을 방문한 알베르토 아나야 구테레스 전국지도자를 단장으로 하는 멕시코 노동당 대표단을 만나 담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다. 공식행사

2017. 4. 15.

■ 北, 김일성 생일 105주년 열병식 시작...김정은 참석(연합뉴스)

-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태양절)을 맞아 15일 오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열병식)를 개최함.
- 김정은 위원장은 오전 10시22분께 검은색 리무진에서 내린 뒤 육·해·공군, 노동적위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며 주석단에 입장함.
- 중앙TV는 '최정예의 총대 대오'가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군사기술적 우세에 중지부를 찍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식의 가장 위력한 최첨단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보여주기 위해 정렬했다고 보도함.

■ 달라진 北 열병식 풍경...군단장들 열병부대 인솔(연합뉴스)

-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15일 개최된 김일성 105주년 생일 기념 북한군 열병식에서는 각 군종 사령관, 군단장 등 고위 간부들이 직접 열병부대를 인솔하는 등 예전과 다른 형식이 나타남.
- 본격적인 열병 행진에 앞서 각각 북한군의 당·군사·행정 컨트롤타워인 북한군 총정치국·총참모부·인민무력성 소속 장성과 장교들이 김일성·김정일 초상기를 호위하며 광장을 지나갔으며, 열병 행진이 시작되자 김일성 항일빨치산 부대를 형상한 열병부대가 백마를 탄 지휘관을 앞세우고 선두를 장식, 그 뒤를 6·25전쟁에 참전했던 부대들이 행진함.
- 북한은 6·25 전쟁 참전 부대들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각 열병부대를 인솔하는 지휘관의 이름과 계급을 모두 공개했는데, 군단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가 직접 열병부대를 인솔하고, 또 인솔 지휘관의 이름과 계급을 모두 공개한 것은 북한 열병식 역사상 처음임.

■ 北, 김일성 생일에 열병식...신형 ICBM으로 대미 무력시위(연합뉴스)

-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태양절)인 15일 오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포함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열병식)를 개최함.
- 열병 행진과 각종 재래식 무기에 이어 북한의 각종 전략미사일 부대(전략군로켓총대)가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대장)과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대장)의 지휘 하에 행진했으며, 여기서 북한은 최소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ICBM을

공개함.

- 이날 중앙TV가 방영한 주석단에는 숙청설이 제기됐던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대장(별 4개) 계급장을 단 모습으로 등장함.

2017. 4. 16.

■ 김일성 105번째 생일 경축연회·야회(연합뉴스)

- 김일성의 105번째 생일(태양절)인 지난 15일 목란관과 인민문화궁전, 옥류관, 청류관, 무지개호, 대동강호 등지에서 경축연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김기남·오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리명수 북한군 총참모장 등이 연회에 참석함.

■ 김일성 생일 105돌 축하 청년·학생들 야회 개최(연합뉴스)

- 김일성 생일 105돌을 축하하는 청년·학생들의 야회가 지난 15일 저녁 김일성광장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함.
- 김영남·황병서·박봉주·최룡해 등이 주석단에 나왔다고 이들 매체는 보도함.

2017. 4. 17.

■ 김일성 생일 기념 해외동포·연고자 연회(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이 17일 김일성 생일(태양절·4월 15일) 105돌을 기념해 해외동포들을 위한 연회가 지난 1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으며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이 참석했다고 보도함.
- 또한 해외 연고자 가족들을 위한 연회가 지난 16일 열렸으며,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 김일성 생일 기념 봄 인민예술축전 폐막(연합뉴스)

- 김일성 생일을 기념해 평양에서 개막된 제5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이 17일 동평양대극장에서 폐막했으며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폐막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함.
-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폐막식에 참석함.

2017. 4. 18.

■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창립 70돌 보고회(연합뉴스)

-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이불공장) 창립 70돌을 기념한 보고회가 지난 17일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18일 보도함.
- 보고회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됐으며, 안정수 당 중앙위 부장(경공업부장)이 행사에 참석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7. 4. 18.

■ 北 외무성 부상 “핵무기 허구 아니다…6자회담은 탄생 때 목 졸려”(연합뉴스)

- 신흥철 북한 외무성 부상은 17일(현지시간) 중동 알자지라 방송과 평양에서 한 단독 인터뷰에서 “우리의 핵무기 보유는 허구가 아니다”라면서 “이건 미국의 달러와 교환하거나 팔 수 있는 상품도 아니다”라고 주장함.
- 신 부상은 “따라서 핵무기는 이를 없애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6자 회담은 태어났을 때 목이 졸려버렸다”고 주장함.
- 신 부상은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구걸하지는 않겠다”며 “미국이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징후라도 감지되면 우리군은 미군 기지가 한반도, 일본 뿐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침략에 가차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함.

2017. 4. 19.

■ 北, 김일성 ‘유훈’ 강조하며 “통일 대통로 열어야”(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일성 동지는 주체 조선의 영원한 태양이시다'란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조국통일은 김일성 동지의 간곡한 유훈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족 지상의 과업”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올해가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45주년, 10·4 선언 발표 10주년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올해에 우리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반통일 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 북한은 김일성 생일을 맞아 13일 개막한 김일성화 축전에서도 전시된 장식품에 ‘7·4 공동성명’과 ‘10·4 선언’이라는 글자가 각각 새겨진 깃발을 세우고 그사이 에 설치한 전광판에 ‘조국통일 3대헌장’이라는 글자를 내보내며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유도함.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2017. 4. 18.

- 해운제재로 바닷길 막힌 北 “새 무역선 ‘자력호’ 출항”(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은 18일 “5천t급 무역집배(화물선) ‘자력’호가 출항하였다”며 17일 평안남도 남포 소재 조선소인 영남배수리공장에서 출항식이 열렸다고 보도함.
- 출항식에는 오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임철웅 내각 부총리, 강종관 육해운상 등 고위 인사들이 참가함.
-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북한 자체 기술로 만든 자력호의 출항은 “자력자강의 정신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며 “나라의 해상운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함.

다. 경제 상황

2017. 4. 19.

- “北서 6·25 참전 미군 인식표 거래…1천달러 호가”(연합뉴스)

- 북한 내에서 6·25 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의 인식표(군번줄)가 거래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함.

- 진위가 검증되지 않은 미군 인식표에 대해 개당 1천 달러(114만원)까지 가격을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자유북한국제네트워크의 김동남 대표는 RFA에 제보함.
- 북·중 국경지방의 한 소식통도 이 매체에 미군 유해 발굴에 미국이 돈을 지불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인식표를 두고 흥정이 벌어진다고 “가짜 인식표까지 등장했다”고 주장했다고 RFA는 보도함.

2017. 4. 20.

■ “제재대상 北 은행, 연 7% 이상 신탁수익률 제시”(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의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 은행이 연 7% 이상의 높은 신탁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인 NK뉴스를 인용해 20일 보도함.
- NK뉴스는 북한 대성신용개발은행(Daesong Credit Development Bank)의 신탁증서 판매 안내 책자를 북한 내에서 확보했다며 사진을 공개함.
- 책자에는 '기관, 기업소, 개인들의 재산을 일정한 기간 넘겨받아 책임적으로 관리·운영'한다며 '개인들이 위탁하는 유희 화폐 재산에 따르는 관리를 잘하여 이익금을 1년에 7% 이상으로 보장'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고 RFA는 보도함.

라. 대외 경제 관계

2017. 4. 17.

■ 중국인, 북한 관광에 ‘싸늘한’ 반응…지나달부터 급감(연합뉴스)

- 시트립, Lvmama.com, LY.com 등 주요 온라인 여행사가 북한 관광상품 판매를 전격 중단했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17일 보도함.
- 북한 방문 수요가 줄면서 중국 최대 국제항공공사(에어차이나)는 지난 14일 베이징-평양 노선 운항을 잠정 중단키로 했으며, 중국 Lvmama.com 여행사 선전부는 “북한이 중국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 북한 관광상품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함.
- 반면에 일부 온라인 여행사와 북중접경인 단둥의 여행사는 여전히 북한 관광상품을 취급하고 있음.

■ 베이징에 본사 둔 고려투어 “북한관광 문제없다”(연합뉴스)

- 중국 여행사들이 북한관광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베이징에 본사

를 둔 영국 여행사 고려투어는 북한관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 고려투어는 16일 자사 블로그에 “우리의 북한 여행 프로그램 중에 취소·단축된 것은 없다”면서 “1993년부터 이어온 북한관광을 변함없이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게재함.
- 고려투어는 “현재 북한에 70명이 넘는 관광객들과 이들을 보호하는 직원들이 있다”며 “고려항공 일정이나 중국으로 돌아오는 기차 일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함.

2017. 4. 18.

■ **말레이 이민당국 “불법체류 북한인 296명 자수·곧 송환”(연합뉴스)**

- 베리타하리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무스타파 알리 말레이시아 이민국 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예시한 만료일인 18일까지 “단속을 피해 잠적했던 북한 근로자 117명 중 113명이 자수했다”고 발언함.
- 자수자 대부분 보르네오 섬 북서부 사라왁주(州)의 대형 건설현장과 탄광 등지에서 일하던 외화벌이 일꾼들로, 이민 당국은 김정남 암살 사건 수사를 계기로 사라왁주의 북한 근로자 대다수가 불법체류자란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음.
- 알리 국장은 “결과적으로 자수한 북한인 불법체류자는 모두 296명”이라면서 “고용주들의 협력을 받아 이들을 전원 출국시킬 것”이라고 발언함.

2017. 4. 19.

■ **“중국행 北선박, 평소 절반으로 줄어…‘석탄금수’ 영향”(연합뉴스)**

- 중국이 지난 2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한 이후 중국을 오가는 북한 선박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함.
-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최근 중국 근해에서 포착된 북한 선박이 평소의 절반에 불과한 40여 척이라고 VOA는 보도함.
- VOA는 또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 자료를 인용, 지난 3월부터 4월 18일까지 세계 각지 항만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 43척 중 중국에서 검사받은 선박이 18척으로 전체의 41%이라고 분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중국에서 검사받은 북한 선박의 비율은 75%였고, 2015년과 2014년에도 각각

84%와 73% 비율을 차지했다”며 올해는 평소의 절반 수준이라고 보도함.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7. 4. 15.

■ 北, 평양 여명거리 살림집 이용허가증 학자들에 우선권(연합뉴스)

-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15일)을 앞두고 조성한 평양 여명거리의 살림집 이용 허가증을 수여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5일 보도함.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와 철거 세대 주민에게 제일 먼저 허가증을 주도록 지시했다고 신문은 보도함.
- 이날 모임에는 여명거리에 살게 될 교원, 연구사, 주민과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가했으며, 모임의 연설자들은 “모든 생활 조건과 환경이 훌륭히 갖추어진 여명거리 살림집들은 우리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고귀한 결정체”라고 발언함.

■ 北, ‘최대 명절’ 김일성 생일 맞아 대대적 축제(연합뉴스)

- 북한은 15일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을 맞아 대대적인 축제가 진행됨.
- 조선중앙TV는 15일 오후 8시(평양시간 7시 30분)부터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 경축 청년 학생들의 야회'를 생중계함.
-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 메아리는 “전국의 소학교(초등학교) 학생들과 유치원, 탁아소 어린이들이 맛있고 영양가 높은 당과류를 받아 안았다”며 “평양으로부터 최북단 두메산골과 분계연선마을, 외진 섬에 이르기까지 방방곡곡에 펼쳐진 가슴 뜨거운 화폭은 우리 당의 후대 사랑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보도함.

2017. 4. 16.

■ 北 노동신문, 열병식 소식 포함 ‘태양절’ 특집판 발행(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6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15일·태양절) 개최된

열병식 소식 등을 대대적으로 보도함.

- 노동신문은 이날 평소보다 4개 면이 늘어난 10면 특집판을 발행하면서 열병식과 평양시 군중시위를 비롯해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축하연설, 청년 학생들의 야회(무도회), 경축연회,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의 태양절 경축공연 등을 보도함.
- 특히 신문은 1면부터 7면까지 전날 김일성광장에서 개최된 열병식과 평양시 군중시위 소식을 사진 70여 장과 함께 보도했으며, 2면에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소식을 게재함.

2017. 4. 18.

■ 北, 사관학교 명칭서 ‘결가지’ 지우고 빨치산 이름 붙여(연합뉴스)

- 북한군이 김정은 체제 들어 군종·병종별 사관학교 명칭에서 김일성 주석의 삼촌과 동생 등의 이름을 빼고 '빨치산' 출신들의 이름으로 대체한 것으로 18일 확인됨.
-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형직(김일성의 부친) 군의대학은 '림춘추 군의대학'으로, 김철주(김일성의 동생) 포병종합군관학교는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로, 김형권(김일성의 삼촌) 통신병군관학교는 '최강 통신병군관학교'로 각각 이름이 바뀜.
- 이번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이름이 공개된 사관학교들은 오중흡 보위대학, 최현 기술군관학교, 최춘국 탱크·자동차병군관학교, 김성국 고사포병군관학교 등으로 모두 빨치산 출신의 이름이 앞에 붙음.

■ 北, 3군 이상화 국제행사 준비 박차·평양서 협의회(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은 18일 “백두산위인칭송 국제축전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협의회가 17일 평양에서 진행됐다”며 협의회에는 김일성 생일(4월 15일)을 맞아 북한을 방문한 멕시코, 방글라데시, 네팔 등 여러 나라의 준비위원회 대표들이 참석했다고 보도함.
- 노동신문은 협의회에서 “백두산위인칭송 국제축전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활동 방향이 구체적으로 토의(논의)됐다”고 보도함.
- 협의회에 참석한 박경일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은 북한 내에서 김씨 일가 ‘칭송비’를 건립하는 등 국제행사 준비가 한창이라고 발언함.

■ “北, ‘반미 정신교육’ 본격화·신천박물관 참관 강요”(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미국의 고강도 압박에 직면하자 주민들에게 ‘반미(反美) 교양의

- 거점'으로 불리는 신천박물관 참관을 강요하는 등 정신교육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NK가 18일 보도함.
- 황해남도 소식통은 이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반미교양’의 장으로 활용하던 신천박물관 견학을 늘리는 등 주민들에 대한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발언함.
 - 소식통은 신천박물관 참관자의 대부분이 기관·기업소 종업원들과 농작물 파종에 나선 농민들이라며 “1년 생계가 걸려 있는 봄철에 견학을 가게 된 농민들은 이번 지시를 받기지 않고 있다”고 발언함.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2017. 4. 19.

■ “北, 두만강 150m 이내 접근 제한…주민 불편 커”(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최근 두만강으로부터 150m 이내 지역에 주민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함.
- 함경북도 소식통은 “국경 연선 주민들은 일단 집 문밖으로 나서면 인민반에 목적지를 신고하라는 지시가 4월 초 중앙에서 하달됐다”면서 “떨감을 얻거나 땀기밭 농사를 위해 산에 가는 주민들은 곳곳에 설치된 검열초소에서 몸과 짐 수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 소식통은 주민 단속이 강화된 배경에 대해 “국경 연선의 일부 주민들이 전과 탐지기가 없는 산에 올라가 불법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며 “홀로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집단이동보다 더 심해 특별한 이유 없이 혼자 나다닐 수 없다”고 설명함.

2017. 4. 20.

■ “北, ‘태양절’ 당일 휴대전화 서비스 최소한 두 번 차단”(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인 지난 15일 ‘태양절’ 관련 행사가 열린 시간대에 휴대전화 서비스를 최소한 두 차례 차단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 매체인 NK뉴스가 20일 보도함.
-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여행사의 사이먼 코커렐 대표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평양에서 15일) 오전 10시 10분 전쯤부터 휴대폰 네트워크가 차단돼 3G와 통화 기능이 모두 중단됐다”며 서비스 중단이 약 3시간 이상 지속했다고 제보함.
 - 이어 이날 오후 평양 시내에서 열린 대규모 춤 공연과 불꽃놀이 행사 때도 휴대전화 네트워크가 또 한 차례 차단됐다고 매체는 보도함.

라. 사회 동향

2017. 4. 16.

■북한 봉수교회·칠골교회, 부활절 예배 진행(연합뉴스)

- 부활절 예배가 16일 북한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예배에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 일꾼들과 봉수교회, 칠골교회의 교직자들, 신자들, 평양에 체류하는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북한 순천화력발전소, 대출력 고압전동기 관련 자체 기술 개발(연합뉴스)

- 북한 순천화력발전소 기술자들이 대출력(고출력) 고압전동기를 유연하게 가동할 수 있는 자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이 16일 보도함.
- 이로 인해 수입산 고출력 고압 주파수 변환기를 쓰지 않고 발전기의 연속 가동 일수를 최고 10배까지 늘인 상태에서도 전력생산의 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이 매체는 주장함.

■김일성 생일 기념 제22차 ‘태양절 요리축전’ 개최(연합뉴스)

- 북한에서 김일성의 생일을 맞아 제22차 ‘태양절 요리축전’이 1천 명의 요리사와 접대원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북한의 대외 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가 16일 보도함.

2017. 4. 17.

■北, 태양절 지나자마자 내년 국제행사 홍보…참가자 모집(연합뉴스)

- 북한은 최근 대남 선전용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내년 4월 열릴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하 축전)’ 홍보를 위한 웹 페이지를 개설한 것으로 17일 확인됨.
- 북한은 다음 달 22~25일 열리는 국제 무역 박람회인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홍보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이 행사의 공식 파트너인 캐나다의 대북교류 비영리단체 ‘백두문화교류사’(PCE)는 지난 15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자료에서 “제재와 정치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람회 방문객을 환영한다”고 밝힘.

■ 김일성 생일 기념 영화·TV극 공모전 당선작 선정(연합뉴스)

- 김일성 생일을 맞아 전국 영화문학(장편, 중편, 단편) 및 TV극문학 현상모집(공모)이 진행돼 당선작이 선정됐다고 북한 인터넷 선전 매체 ‘메아리’가 17일 밝힘.

2017. 4. 18.

■ 北, 여명거리 입주 시작…김일성대 교수 먼저(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여명거리에서 집들이가 시작되었다”며 “17일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교수), 연구사들과 철거세대 주민들이 새 살림집(아파트)들에 제일 먼저 입사(입주)했다”고 보도함.
- 신문은 “70층 초고층 살림집 구내로 이삿짐들을 실은 자동차들이 줄지어 들어섰다”며 “청년 대학생들이 새집에 입사하는 선생님(교수)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며 열렬히 축하해주었다”고 집들이 풍경을 소개함.
- 여명거리에 가장 먼저 입주한 김일성대 교수들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고마움을 쏟아냈다고 신문은 보도함.

■ 北 평양장충성당에서 부활절 특별 기도모임 개최(연합뉴스)

- 평양장충성당에서 지난 16일 부활절 특별 기도모임이 열렸다고 북한 대외용 사이트 ‘려명’이 18일 공지함.

2017. 4. 19.

■ 北 김일성종합대 저작권관리기구 신설…“세계 흐름 동참”(연합뉴스)

- 북한 김일성종합대에 특허와 저작권 대리사업을 하는 ‘룡남산저작물교류사’가

신설됨.

- 김일성종합대는 통남산저작물교류사에 대해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창조하는 각종 형태의 저작물들에 대한 종합적이며 통일적인 관리를 실현하는 곳”이라고 설명함.
- 김일성종합대는 이 기구를 통해 대외저작물 거래와 보호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며, 각종 통신·공보 수단들을 이용해 대학의 창작 성과, 개발 성과들을 널리 소개하고 선전하는 사업도 함께하겠다고 주장함.

2017. 4. 21.

■ “北, 성인 식량배급 하루 400g으로 늘려…유엔권장량엔 부족”(연합뉴스)

- 미국의소리방송(VOA)이 21일 북한 당국이 올해 1분기(1~3월) 성인 한 명당 하루 평균 400g의 식량을 배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함.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지난해 북한의 수확량 증가 추정과 연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는데, 400g은 북한의 지난해 같은 기간 배급량인 370g보다 약 10% 늘어난 수치임.
- 하지만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인 600g의 69%에 불과하며, 북한 당국의 목표인 573g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임.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4. 15.

■ 美 트럼프 정부 ‘최고의 압박과 개입’ 대북전략 수립(연합뉴스)

- 미 AP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두 달간의 재검토를 거쳐 북핵 문제와 관련해 ‘최고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을 골자로 한 대북 원칙을 수립했다고 보도함.
- 트럼프 정부는 재검토 과정에서 북핵 저지를 위해 군사적 옵션과 김정은 체제 전복 등 초강경 대응 방안은 물론 이와 정반대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까지 광범위한 대책을 살폈다고 관계자는 제보함.

- 현 상황에서는 대북 압박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관계자는 제보함.

■ 北, 트럼프 정부 거명하며 “전쟁 두렵지 않아” 핵능력 과시(연합뉴스)

- 북한이 15일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태양절)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서 축하 연설에 나선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거론함.
- 최룡해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주권국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다며 “광란적인 핵전쟁 도발 책동을 벌이면서 일촉즉발의 위험한 전쟁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함.
- 최룡해는 북한이 “누구보다도 평화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2017. 4. 17.

■ 北, 칼빈슨호 재전개에 “美 선제타격 기도 실천단계”(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의 한반도 주변 해역 재전개에 대해 “미국의 선제타격 기도가 실천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주장함.
- 노동신문은 이날 ‘정의의 핵 불벼락을 피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칼빈슨호 파견은 “가뜩이나 험악한 지역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무모한 침략행위”라고 주장함.
- 또한 “미국과 괴뢰 호전광(한국)들이 전쟁열로 들뜬 머리를 식히고 자중, 자숙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참혹할 것”이라고 주장함.

■ 펜스 “北, 트럼프와 미군의 힘 시험말라…모든 옵션 테이블에”(연합뉴스)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며 “북한은 우리 대통령(도널드 트럼프)의 결의를 시험하거나 이 지역 미군의 힘을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발언함.
- 펜스 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에 대해 “내가 한국에 오는 와중에도 (북한은) 실패했지만,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며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발언함.
- 펜스 부통령은 북한을 향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인접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끝내고, 자국민에 대한 억압을 종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함.

2017. 4. 18.

■ 유엔 北차석대사 “美 원하는 어떤 전쟁모드에도 대응 준비”(연합뉴스)

-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인룡 차석대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군사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미국이 간절히 원하는 어떤 종류의 전쟁모드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함.
- 김 차석대사는 북한의 대응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으며,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의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점에 지도부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만 발언함.
- 김 차석대사는 미국을 향해 “한반도를 세계 최대의 분쟁지로 만들어놓고 있다”며 ‘핵전쟁이 언제든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상황’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함.

■ 백악관 “대북 레드라인 없다…트럼프 필요시 단호한 행동 취할 것”(연합뉴스)

- 손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레드라인 관련 질문에 “과거에 대통령들이 시리아에 대해 레드라인을 설정했었는데 잘 작동하지 않았다”고 발언함.
-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레드라인을 과거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그런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래밭에 어떤 레드라인을 그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해 취한 행동(공군기지 폭격)은 그가 적절할 때 단호한 행동을 취할 것(take decisive action)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함.
- 스파이서 대변인은 선제타격 옵션 질문에 대해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빼는 것은 우리의 옵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입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설명함.

■ 北 외교라인 대외선전 총력전…‘전면전·핵 선제공격’ 주장(연합뉴스)

- 한성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우리는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로 더 많은 미사일 시험을 수행할 것”이라며 도발행위 지속 의지를 보였다고 영국의 BBC 방송이 18일 보도함.
- 한 부상은 지난 14일 미국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원할 때 언제든지 6차 핵

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며 미국의 선제타격에 팔짱 끼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김인룡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군사 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미국이 간절히 원하는 어떤 종류의 전쟁모드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함.

■ 유엔 北차석대사 “한반도 문제해결 전제는 美 적대정책 철회”(연합뉴스)

-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인룡 차석대사는 17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쌍궤병행·雙軌並行)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힘.
- 유엔 홈페이지에 게재된 김 대사의 기자회견 영상에 따르면 그는 “(북미 간)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서 두 문제(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는 서로에게 제약이 될 뿐”이라고 주장함.
- 김 대사는 “우리의 핵보유국 위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인 만큼 협상 테이블에 올릴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함.

■ 北 “미사일 계획 따라 계속 시험…美공격계획엔 선제 핵공격”(연합뉴스)

- 한성렬 북한 외무성 부상은 평양에서 BBC 취재진과 만나 “우리의 자체적 일정에 따라 매주, 매월, 매년 더 많은 미사일 시험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언함.
- 한 부상은 “만약 미국이 우리를 향해 군사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방식과 수단으로 핵 선제공격으로 대응하겠다”고 발언함.
- 한 부상은 “미국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만큼 무모하다면 그날 바로 전면전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고 발언함.

■ 北 매체 “타산 밝은 트럼프, 현실 똑바로 보고 선택해야”(연합뉴스)

-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8일 ‘도발의 대가를 멸망으로 치르게 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지금이야말로 타산이 밝기로 유명하다는 기업가 출신의 트럼프 행정부가 현실을 똑바로 보고 운명적인 선택을 하여야 할 때”라고 주장함.
- 이 매체는 “선택을 잘못하여 신세를 망치고 역사의 무덤 속에 처박히겠는가, 아니면 조금이나마 잔명을 부지해 보겠는가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미국이 서 있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매체는 또 미군의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의 폭격을 거론, “핵무기가 없고 힘이 약한 나라들만 골라가며 두들겨패고 힘자랑하는 꼴은 우리에게 가소로움만을 더해주고 있다”며 “그러한 허세는 동방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인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주러 北공사 “美와 핵전쟁 준비돼 있다”(연합뉴스)

- 북한은 미국이 핵전쟁을 일으키면 그것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주장함.
- 진정협 공사는 18일(현지시간) 북한 외교관들을 러시아 하원으로 초청한 극우민족주의 성향의 ‘자유민주당’ 대표 블라디미르 쥐리놉스키와의 면담에서 이같이 경고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함.
- 진 공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의 어떤 도발과 공격적 행동에도 대응할 의지와 힘을 갖고 있다”면서 “그들이 핵전쟁을 원한다면 우리도 핵전쟁으로 응답할 것이며 전면전을 원하면 전면전에도 준비돼 있다”고 주장함.

2017. 4. 19.

■ 美부통령 “北, 우리 뜻 알아채는 것 고무적…잘 처신하라”(연합뉴스)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펜스 부통령은 CNN과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이제는 북한이 잘 처신할 때가 됐다”면서 “국제사회에 귀를 기울이고, 핵과 탄도 미사일에 대한 야욕을 내려놓고, 기꺼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때가 됐다”고 발언함.
-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우리의 뜻을 알아채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주장함.
- 또한 “북한이 미국과 일본, 한국뿐 아니라 점차 중국을 포함해 한반도 비핵화에 진력하는 모든 나라의 메시지를 계속 이해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함.

■ 트럼프 “김정은이 얼마나 평화 원하는지가 관건”(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얼마나 평화를 원하는지가 북미 긴장 완화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발언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 주 지역 방송인 TMJ4-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평화를 원하고, 김정은 역시 평화를 원하기를 바란다고, 그것이 “마지막 결의”가 될 것이라고 발언함.
- 이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북한이 미국에게 싸움의 명분을 주지

않는다면 미국도 싸움 이유가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이 싸움을 부추기고, 미국에 싸움의 명분을 주려 한다면 결국은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함.

2017. 4. 20.

■ 美,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틸러슨 “모든 옵션 심사 중”(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 지원국(sponsor of terrorism)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함.
- 틸러슨 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과거 열린 협상과는 다른 입장에서 북한에 관여하고 북한 정권에 대해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함께 테러 지원국(재지정)까지 고려하는 측면에서 북한의 모든 지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함.

■ 北 “미국의 ‘선제타격 운운’ 추태, 사회주의 승리 증거”(연합뉴스)

- 북한은 20일 평양선언 25주년을 맞아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늘날 선제타격까지 운운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최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미국의 광적인 추태는 우리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있다는 더없이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함.
- 통신은 이날 ‘주체의 사회주의 승리는 역사의 진리’라는 제목의 9천 자가 넘는 장문의 기사를 통해 “사회주의의 존엄과 권위를 굳건히 수호해나가고 있는 조선의 위용은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고 있다”고 주장함.
- 통신은 미국 중심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면서 “세계 최대의 정보망과 전략 기구를 자부하는 미국이지만 조선 사회주의의 본질을 모르는 데 비극이 있다”며 “위대한 당, 사상에 의해 지도되고 핵무기로도 깨뜨릴 수 없는 일심단결과 무진막강한 군사력에 조선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는 비결이 있다”고 주장함.

■ 北 “美 항공모함, 가까이 올수록 섬멸적 타격 효과 커져”(연합뉴스)

- 북한은 20일 다음 주 한반도 해역에 도착할 예정인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관련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섬멸적 타격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함.
-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 TV는 이날 ‘화면으로 본 대북제재 효과’라는 제목의 3분 32초짜리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자막을 통해 “미국의 핵 항공모함 전단 따위에 놀랄 우리가 아니다”라며 “우리를 건드리는 자들에게

는 생존을 허용하지 않는 파멸적 징벌이 가해질 것”이라고 주장함.

- 미국에서 제기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제거 논의 등과 관련해 “무엇하게도 참수작전과 선제타격을 부르짖으며 미국의 핵 살인 장비들을 조선반도로 불러 들인다”고 주장함.

2017. 4. 21.

■ 北, 美 ‘주피터 계획’ 강행에 “불마당질” 위험(연합뉴스)

-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는 20일 대변인 담화에서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방어체계 구축 프로그램 ‘주피터 프로젝트’ 장비 부산항 8부두 배치에 대해 “우리는 미국의 북침 생화학 전쟁 도발책동을 결코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악의 제국을 송두리째 불마당질 해버리겠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담화는 주피터 계획을 ‘극히 위험천만한 살인전쟁 각본’이라며 “조선반도(한반도) 전역을 하나의 거대한 생화학전 시험장으로 만들고 우리 민족에게 무서운 재난을 들뜨우려는 치 떨리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함.
- 또한 “미국은 새로운 생화학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그것을 제2의 조선전쟁에 적용할 흥계를 꾸미고 있다”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인류평화의 파괴자 미국과 상전의 생화학전쟁 도발 흥계에 추종하는 괴뢰 역적 패당의 무분별한 북침전쟁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나. 북·중 관계

2017. 4. 15.

■ 북·미 긴장 와중 中고위인사들 北대사관 연회에 출동(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15일·태양절)을 사흘 앞둔 지난 12일 주중 북한 대사관이 연회를 마련했다고 15일 보도함.
- 연회에는 왕자루이(王家瑞)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 왕야권(王亞軍)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부장조리, 퉁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 우둥허(武東和) 중조(북중)우호협회장 등이 참가했다고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 매체인 평양방송은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왕자루이 부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조(북중) 친선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며 “중조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2017. 4. 16.

■ 中, 북한 관광 전면 중단…北 열병식에 고위직 불참(연합뉴스)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6일 중국 최대 국영 여행사인 중국국제여행사(CITS)와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시트립 등 중국의 대다수 여행사가 북한 관광을 전면 중단했다고 보도함.
- 또 중국에서는 유일하게 지난 2008년부터 북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이 17일부터 베이징-평양 노선을 잠정 중단하기로 함.
-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1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거행된 열병식에 중국 고위 당국자들은 참석하지 않았음.

2017. 4. 17.

■ 中 관영매체, 北에 또 경고 “6차 핵실험하면 원유공급 중단”(연합뉴스)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7일 사평(社評)에서 “북한이 열병식과 다음날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외부 세계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며 “북한이 중요한 기념일 전후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미중 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실험은 의미가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는 “원유 공급 중단을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통과를 지지할 것”이라고 보도함.
- 환구시보는 지난 12일에도 ‘결전 앞둔 북핵 문제, 북한 멈춰서야’라는 사평에서 “최근 점점 더 많은 중국인이 대북제재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달 ‘마지노선’을 또 한 번 넘는다면 중국 사회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을 포함한 유엔의 추가 제재에 찬성표를 던지길 원할 것”이라고 주장함.

■ 中, 우다웨이 방북설에 “북핵문제 관련 북한과 긴밀 소통”(연합뉴스)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을 방문했던 우다웨이 대표가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북·중은

- 우호적인 이웃으로 쌍방은 우호적인 왕래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언함.
- 루 대변인은 “우다웨이 대표는 한국을 방문했으며 북·중은 우호적인 이웃 나라로 쌍방은 정상적인 긴밀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핵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유관 각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발언함.
 - 중국국제항공이 최근 평양행 운항을 중단한 것에 대해선 “항공 시장의 경영 상황에 근거해 항공편에 대한 조정으로 외국 항공사나 중국 민영 항공사 모두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서 “과도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

2017. 4. 18.

■ 中, 北미사일 운반차량 중국제 의혹에 “대북제재 엄격이행한다”(연합뉴스)

-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핵실험 관련 위성 사진에 핵무기 운반차량과 타이어가 중국제라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여러 차례 말했듯이 중국과 북한은 이웃 나라이고 양국은 정상적인 무역 왕래를 비롯한 정상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고 발언함.
- 루 대변인은 “이와 동시에 중국은 유엔 회원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에 부여된 내용을 포함해 국제의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면서 “다자로 구성된 안보리에 부여된 일련의 의무 외에 어떤 일방적인 제재에 대해 중국은 반대한다”고 발언함.
- 그는 최근 공개된 북한 미사일 차량의 대부분이 중국산 트럭이며 중국 업체의 물품이 이처럼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데 대해 걱정되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선 “당신이 말한 이중용도로 쓰는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구체적인 이중용도에 대해 어떤 게 허용되고 어떤 게 금지 범위에 들어가는지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설명하며, “안보리 결의안에 금지되는 범위에 속하는 것에 대해선 중국 측은 엄격히 따를 것”이라고 답변함.

다. 북·일 관계

2017. 4. 17.

■ 北 송일호, 日언론에 “납치문제에 아무도 관심 없어”(연합뉴스)

-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가 17일 일본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2014년 ‘스톡홀름 합의’에 대해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는데, 누가 납치피해

자 조사를 하는가”라는 취지로 발언함.

- 송 대사는 “납치에 대해선 아무도 관심이 없다”며 일본 측의 합의 파기로 납치피해자에 대한 재조사는 중지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함.
- 송 대사는 이날 1945년 2차대전 종전 후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북한에 남은 잔류 일본인과, 같은 시기에 현지에서 사망한 일본인의 유골 문제에 대해선 “인도적 입장에서 앞으로도 취급한다”며 “일본 측에서 요망이 있으면 대응할 것”이라고 발언함.

2017. 4. 19.

■ 北, 日언론에 해방 후 잔류일본인 매장지 공개…대화재개 모색?(연합뉴스)

- 북한이 일본 언론에 해방 후 북한 지역에 남아있다가 사망한 '잔류 일본인'의 매장지를 공개했다고 NHK가 19일 보도함.
- 북한은 18일 함경남도 함흥(咸興) 교외의 부평(富坪) 지구의 잔류 일본인 유골 발굴 현장을 공개함.
- 이 지역은 해방 직후 구(舊) 소련의 수용소에서 생활하던 일본인 1천500명이 숨진 곳으로 알려짐.

2017. 4. 20.

■ 북한, 日언론에 ‘복송 일본인 부인’ 단체 소개…“대화재개 의도”(연합뉴스)

- 북한이 일본 언론에 재일동포와 함께 복송됐던 일본인 부인(일본인처<妻>)들의 단체를 소개함.
- 20일 NHK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일본 언론에 함경남도 함흥(咸興)의 일본인처 모임인 ‘함흥 무지개 회’ 사무실에서 이 단체 회원 6명들의 기자회견을 전달함.
- 북한은 이 단체를 소개하며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작년 11월 활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함.

■ 北, 소녀상 철거시도 일본에 “정치난쟁이” 비난(연합뉴스)

-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0일 ‘과거 청산이 없는 미래란 있을 수 없다’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반대한다고 해서 일본이 과거에 아시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특대형 반인륜 범죄를 역사의 흑막 속에 영원히 묻어버릴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논평은 “일본은 저들의(자기들의) 과거 범죄가 국제사회에 부각되는 데 대해 몹시 두려워하면서 이를 무마해 보려고 발악하고 있다”며 “일본의 행태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려 보려는 철부지 아이들의 장난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함.
- 논평은 “과거 범죄를 청산하지 않고 정치대국이 돼보겠다는 것은 목욕도 하지 않고 신사가 돼보겠다는 것만이나 우둔한 처사”라며 “어지러운 과거를 깨끗이 털어버린 후에야 일본은 국제무대에 뿔뿔이 나설 수 있고 남들과 의사소통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함.

라. 북·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4. 16.

■ 英 외무부, 北미사일 도발에 “몹시 우려…예의주시할 것”(연합뉴스)

- 영국 외무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에 몹시 우려하고 있다”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함.
-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북한에 유엔 대북 결의안을 준수하고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
- 장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일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핵무기 추진을 금지하도록 한 유엔 결의안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발언함.

2017. 4. 19.

■ 말레이 부총리 “북한에 대사파견 여부 확정 안 돼…논의 예정”(연합뉴스)

-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선언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가 북한에 자국 대사를 다시 파견할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함.
- 국영 베르나마 통신과 일간 더스타 등에 따르면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전날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 문제를 총리, 외무부와 논의하겠다”고 답변함.
- 리잘 메리칸 나이나 메리칸 말레이시아 외무부 차관은 19일 말레이시아

상원에서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왜 단절하지 않느냐는 상원의원들의 질문에 “정부는 40여년에 이르는 양국 관계를 고려해 북한과 국교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함.

2017. 4. 20.

■ 갈수록 끈끈해지는 김정은-아사드 ‘편지 동맹’(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가 18일 답전을 보내여왔다”고 20일 보도함.
- 중앙통신에 따르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수리아아랍공화국의 국경절인 독립절에 즈음하여 친절한 축하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한다”며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귀국 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발전이 있을 것을 가장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전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4. 15.

■ 北, 태양절 열병식서 ‘신형 ICBM’ 추정 미사일 첫 공개(연합뉴스)

- 북한이 15일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태양절)을 맞아 진행한 군사 퍼레이드(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처음으로 공개함.
- 북한이 기존 관영매체나 열병식에서 공개한 적이 없던 완전히 새로운 기종으로, 최근 북한이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해서 개발하고 있는 ‘북극성’ 계열의 신형 미사일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됨.
- 열병식에는 북한이 2015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또다른 ICBM인 ‘KN-14’로 보이는 신형 미사일도 등장함.

■ 北, 열병식서 ‘ICBM 3종세트’ 공개…트럼프에 항전 메시지(연합뉴스)

- 북한이 15일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태양절)을 맞아 진행한 군사 퍼레이드(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비롯한 전략무기를 대거 공개함.
- 열병식에 신형 ICBM과 기존에 북한이 선보였던 KN-08, KN-14 등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대 3종류의 ICBM이 동시에 등장한

것으로 추정됨.

- 신형 ICBM은 발사관에 담긴 채 트럭이 끄는 트레일러에 실려 나왔으며, 실제 미사일은 식별되지 않았음.

2017. 4. 16.

■ 합참 “北, 함남 신포일대에서 미사일 발사시도…실패”(연합뉴스)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불상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힘.
- 합참은 “실패한 미사일의 기종 등 세부 내용은 분석 중”이라고 설명함.
- 정보 당국의 한 관계자는 “오늘 발사 실패한 미사일은 지난 5일 신포 일대에서 발사된 것과 같은 계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지상 발사시설에서 멀리 날아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발언함.

■ IAEA 사무총장 “북한, 핵개발 활동 꾸준히 진행…긴장 높아져”(연합뉴스)

-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최근 수년간 북한의 핵(개발) 활동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NHK가 13일 보도함.
- 일본을 방문 중인 아마노 사무총장은 전날 NHK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영변에 있는 핵시설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우라늄 농축시설로 보이는 건물이 배가 됐고, 그 주변에는 부속건물이 건설되고 있다”고 발언함.
- 아마노 사무총장은 “북한은 한다고 말한 것을 확실히 실행하고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이 문제를 지켜봤지만, 긴장은 확실히 높아지고 있다”고 발언함.

■ 美 매체 “北풍계리 핵실험장 준비 완료”…15일 김행하나(연합뉴스)

-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6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13일 발표함.
-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 연구소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이날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상업 위성사진을 분석해 핵실험장이 “장전, 거중”(Primed and Ready) 상태라고 발표함.
- 38노스는 지난 12일자 사진 분석 결과 “북쪽 갭도 입구에서 활동이 계속되고 있고, 주(主) 지원본부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관측됐으며, 지휘통제소 주위로 사람 몇몇이 보였다”고 설명함.

2017. 4. 17.

■ 北, 특수작전군 창설 확인...한미 '침수작전' 맞대응 카드(연합뉴스)

- 북한이 육군, 해군, 공군, 전략군에 이어 새로운 군종(軍種)으로 특수작전군을 창설한 것으로 17일 확인됨.
- 북한이 지난 15일 진행한 김일성 생일 105주년 기념 열병식 중 열병 행진 순서로 미뤄 특수작전군은 군단보다는 규모가 크고 해군, 공군 등과 같은 급의 군종으로 분류된 것으로 추정됨.
- 조선중앙TV는 특수작전군이 광장을 지나갈 때 “최고사령관(김정은) 동지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시면 백두산 번개와도 같이 적들의 심장부에 멸적의 비수를 제일 먼저 꽂을 억센 의지가 서릿발친다”고 설명함.

■ 北, 특수작전군 개인화기로 98식 보총 보급(연합뉴스)

- 북한은 최근 창설한 특수전부대인 ‘특수작전군’의 개인화기로 ‘98식 보총’을 보급한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이 지난 15일 개최한 김일성 생일 105주년 기념 열병식 때 특수작전군 부대원들은 98식 보총을 들고 행사에 참석함.
- 해당 총기는 기존 AK-74보다 전투력이 2~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며, 탄창 한 개로 기존보다 2~5배 쉬지 않고 전투할 수 있으므로 전투력 향상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2017. 4. 21.

■ 유엔보고서 “北 잠수함, 복수의 SLBM 발사 가능할 듯”(연합뉴스)

- 미국 ‘워싱턴 프리 비컨’이 20일(현지시간) 유엔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북한의 SLBM 발사대에서 중대한 기술적 변형이 발견됐다고 보도함.
- 보고서는 “고래급 잠수함의 SLBM 발사관의 양쪽에 통풍구가 추가됐다”면서 “이러한 개선은 이 잠수함이 앞으로 복수의 발사대를 지닌 SLBM 발사 잠수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밝혔으며, SLBM을 개발하는 신포 조선소의 주 제작소가 복수의 SLBM을 적재할 수 있는 더 큰 규모의 잠수함을 추가로 건조할 만큼 확장됐다고 전함.
- 보고서는 “8월 실험은 전례 없는 북한의 SLBM 능력을 보여줬다”, “짧은 시간에 빠른 기술적 발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 “KN-11의 연료가 액체에서

고체로 바뀐 것은 안정성을 키우고 발사 준비 기간을 짧게 하면서 더 많은 연료를 실을 수 있는 주요한 기술적 발전”이라고 설명함.

Ⅱ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4.16		백악관 외교고문 "사드 배치 완료, 韓 차기 대통령 결정할 문제"(연합뉴스)
	4.18		펜스 美부통령, 한미 FTA '개선' 추진 언급(연합뉴스)
			펜스 美부통령 "트럼프, 북핵 평화해결위해 韓中日과 연대의향"(연합뉴스)
	4.20	정부 "국제사회에 올바른 역사인식 확산 노력"(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4.16		중국 화났나...유례없는 '남북한 관광 동시 중단'(연합뉴스)
	4.21		中, 시진핑 '한국 中 일부였다' 발언했으나 질문에 답변 회피(연합뉴스)
			中외교부 "북핵 문제 당사국들 전쟁 원치 않아"(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4.17		日관방 "韓 차기정권도 위안부 합의 이행해야"(연합뉴스)
	4.21	한미일 북핵6자회담 수석대표 25일 도쿄서 회동(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4.16		"中, 美 항법위성·정보망 파괴용 우주 레이저무기 개발 중"(연합뉴스)
		양제츠·틸러슨 전화 통화...한반도 상황 논의(연합뉴스)	
	4.17	백악관 "中, 北관련 정치·경제적으로 할수 있는게 훨씬 더 많다"(연합뉴스)	
			中, 美 '中역할론' 반박..."우리 대북정책은 항상 적절"(연합뉴스)
	4.18	펜스 美부통령 "中 대북 압박 더 해야...北 실수해선 안돼"(연합뉴스)	
	4.21	트럼프 언급 '특이 움직임' 될까...中 대북압박 동향에 무게(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4.20		日외무상 "美, 주일기지 이용 군사행동시 日과 사전협의 필요"(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4.17		러 외무 "北에 시리아 폭격과 유사한 행동 하지말라"...美에 경고(연합뉴스)
	4.19	러시아 폭격기 알래스카 근접비행에 美스텔스기 대응출격(연합뉴스)	
	4.21		러시아 군함, 필리핀 또 입항...美 보란 듯 방위협력 '박차'(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4.19	中, 日자위대 전진배치 검토에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영향"(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4.19	中, 러시아의 안보리 北미사일 규탄성명 반대에 "존중한다"(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4. 16.

■ 백악관 외교고문 “사드 배치 완료, 韓 차기 대통령 결정할 문제”(연합뉴스)

-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완료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미국 백악관 관계자가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16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이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한국 방문에 동행한 백악관의 한 외교정책 고문은 “여타 정부의 결정으로 수주일 또는 수개월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말함.
- 그는 사드 배치 완료와 운용 시점과 관련해 “진행 중에 있지만 솔직히 그들(한국)이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함.

2017. 4. 18.

■ 펜스 美부통령, 한미 FTA ‘개선’ 추진 언급(연합뉴스)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지난 16일 방한한 펜스 부통령은 일정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FTA 개선(reform)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펜스 부통령은 연설에서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한미간 교역량과 직접투자규모 등이 늘어난 사실을 상세히 열거하며 “(이와 같은 성과는) 박수받을 만하다”고 평가함.

■ 펜스 美부통령 “트럼프, 북핵 평화해결위해 韓中日과 연대의향”(연합뉴스)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일본과 한국, 중국과 연대하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고 말함.

-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이날 한국을 떠나 일본 도쿄에 도착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총리 공저(거주지)에서 오찬을 겸해 가진 회동에서 이같이 밝힘.
- 그러면서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평화를 회구하고 있다며, 평화는 힘으로 달성된다”고 강조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압박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방침임을 밝힘.

2017. 4. 20.

■ 정부 “국제사회에 올바른 역사인식 확산 노력”(연합뉴스)

-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의 한반도 관련 대화를 전한 인터뷰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해 파문이 불거진 데 대해 “해당 국가(미국·중국)뿐 아니라 전체 국제사회에 올바른 역사인식이 확산되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힘.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잘못된 역사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하에 이 같은 대응을 하겠다고 말함.
- 조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 발언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여러 외교 경로로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이 파악되는 대로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임.

나. 한·중 관계

2017. 4. 16.

■ 중국 화났나...유례없는 '남북한 관광 동시 중단'(연합뉴스)

- 중국이 한국에 이어 북한마저 중국인들의 단체 관광 중단이라는 유례없는 초강경 조치를 꺼내 들자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음.
- '관광 중단'은 민간 교류를 막는다는 점에서 그동안 중국으로서도 독립 문제를 거론하는 대만 등에만 썼을 정도로 자제하는 보복 조치임.
-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한국에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중단, 북한에는 6차 핵실험을 포함해 추가 도발을 자제하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이런 '레드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임.

2017. 4. 21.

■ 中, 시진핑 ‘한국 中 일부였다’ 발언했느냐 질문에 답변 회피(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의 한반도 관련 대화 내용을 전한 인터뷰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한 데 대해 “한국 국민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은 피함.
- 이는 미·중 최고 지도자간의 대화 내용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극도로 조심스런 입장을 보인 것으로,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는 오해할 필요가 없다며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짐.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이 발언으로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는 질문에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한국 국민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함.

■ 中외교부 “북핵 문제 당사국들 전쟁 원치 않아”(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최근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상황이지만 북핵 문제 당사국들이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밝힘.
- 2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루캉(陸慷)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얼마나 평화를 원하는지가 북미 긴장 완화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해당 보도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힘.
- 루 대변인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 한반도 평화 안전 유지를 실현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해결하는 유일한 효과적인 경로이며 중국 정부의 일관되고 굳건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다. 한·일 관계

2017. 4. 17.

■ 日관방 “韓 차기정권도 위안부 합의 이행해야”(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7일 한국의 대선 선거운동 공식 개시에 맞춰 차기 한국 정권도 한일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함.
-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는 양국이 약속한 것”이라며 “내정 상황과 관계없이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면서 그는 “각각이 책임을 갖고 시행(이행)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행동 아니냐”라고 강조함.

2017. 4. 21.

■ **한미일 북핵6자회담 수석대표 25일 도쿄서 회동(연합뉴스)**

-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는 25일 일본 도쿄에서 회동한다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21일 밝힘.
- 이번 회동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논의 내용이 주목됨.
- 회동에는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4. 16.

■ **“中, 美 항법위성·정보망 파괴용 우주 레이저무기 개발 중”(연합뉴스)**

- 중국이 위성 공격이 가능한 우주 레이저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대만 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 통신은 미국 군사 안보 전문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NI)를 인용해 중국의 레이저무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며 중국이 지향성 에너지 무기(DEW)로 불리는 고출력 레이저, 레일건, 극초단파 무기 등을 개발 중이라고 전함.
- 중국과학원 창춘(長春)광학정밀기계물리연구소의 연구원 3명은 중국 전문잡지 ‘중국광학’에 우주 레이저 무기 개념을 설명하며 미래 전쟁에서 대(對) 위성

무기(ASAT)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 양제츠·틸러슨 전화 통화…한반도 상황 논의(연합뉴스)

- 북한이 16일 탄도 미사일 도발을 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이 전화 통화를 통해 한반도 상황을 논의하는 등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에 나섬.
-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이날 전화 통화를 하고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양제츠 국무위원과 틸러슨 장관은 한반도 문제 논의와 더불어 이달 초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의 합의를 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함.

2017. 4. 17.

■ 백악관 “中, 北 관련 정치-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다”(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일 중국 정부를 향해 북핵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압박성 메시지를 내놓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이 16일(이하 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협력하는데 왜 내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부르겠느냐?”는 글을 올려 중국을 압박한 데 이어, 그의 ‘입’인 손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더욱 노골적인 메시지를 발신했음.
-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의 ‘폭스와 친구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북 역할론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양 측면에서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다”고 말했음.

■ 中, 美 ‘中역할론’ 반박…“우리 대북정책은 항상 적절”(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17일 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중국 역할론을 강조한 데 대해 중국의 대북 정책은 항상 적절했다고 반박함.
-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중국이 취해온 정책이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에 와서야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냄.
- 루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모든 관련 국가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된 주요 당사국이

중국과 똑같이 적절한 정책을 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임.

2017. 4. 18.

■ 펜스 美부통령 “中 대북 압박 더 해야…北 실수해선 안돼”(연합뉴스)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폐기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함.
- 또 중국을 향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압박 조치를 강화할 것을 거듭 촉구함.
- 한국을 방문 중인 펜스 부통령은 이날 남북 대치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CNN과 한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핵 프로그램 발전, 이번 주 또 한 번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은 전략적 인내가 명백히 실패했음을 확인해준다”면서 “대통령은 실패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폐기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함.

2017. 4. 21.

■ 트럼프 언급 ‘특이 움직임’ 뭘까…中 대북압박 동향에 무게(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언급하던 도중 “바로 2~3시간 전에 매우 ‘특이한 움직임’(unusual move)이 있었다”고 말한 것은 중국의 대북 압박 동향에 대한 언급이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림.
- ‘특이한 움직임’을 언급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전문가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처럼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한다”면서 “실제로 많은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이 되돌려 보내졌고, 또 다른 많은 일(중국의 대북조치)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는 점에서 맥락상 중국발 움직임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임.
- 외교 소식통은 21일 “미중정상회담(6~7일 미국) 이후 중국이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중국의 대북 억지 움직임 중 하나를 트럼프가 언급했을 개연성을 거론함.

나. 미·일 관계

2017. 4. 20.

■ **日외무상 “美, 주일기지 이용 군사행동시 日과 사전협의 필요”(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미국이 대북 공격 시 주일 미군기지를 이용한 폭격 등 군사행동을 할 경우 일본과의 사전협의를 ‘법적 의무’라고 밝힘.
- NHK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20일 열린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미국이 대북 무력 공격을 행사할 경우 대응을 묻는 말에 “미국은 일본에서 행해지는 전투작전행동 기지로서 국내 시설 또는 구역 사용이 사전협의 대상이며, 이는 조약상의 의무라는 점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함.
- 기시다 외무상은 이와 관련한 군사행동의 예로 항공부대의 폭격과 현장에서의 공수부대 강하, 지상부대의 상륙작전을 열거함.

다. 미·러 관계

2017. 4. 17.

■ **러 외무 “北에 시리아 폭격과 유사한 행동 하지말라”…美에 경고(연합뉴스)**

- 러시아가 북한을 상대로 시리아를 폭격한 것과 같은 무력 행동을 하지 말라고 미국 측에 경고함.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여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모험적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북한에 대해) 우리가 최근 시리아에서 본 것과 같은 일방적 행동(미국의 시리아 폭격)이 없기를 바란다”고 요구함.

2017. 4. 19.

■ **러시아 폭격기 알래스카 근접비행에 美스텔스기 대응출격(연합뉴스)**

- 러시아의 장거리 폭격기 TU-95 ‘베어’기 두 대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 인근으로 근접 비행해 미군의 F-22 스텔스 전투기 2대가 대응출격을 한 것으로 알려짐.
- 국방부 관리는 러시아 폭격기가 미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아니라면서 미군 전투기들이 안전하고 전문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을 했다고 말함.
- 러시아 폭격기가 알래스카 주변을 근접 비행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양국 간의 긴장 상태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2017. 4. 21.

■ 러시아 군함, 필리핀 또 입항…美 보란 듯 방위협력 ‘박차’(연합뉴스)

- 러시아와 필리핀이 미국에 보란 듯 군사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음.
- 21일 일간 필리핀스타 등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유도탄 순양함 ‘바라크’와 군수지원함 ‘페첸가’가 전날 나홀간의 일정으로 필리핀 마닐라에 입항함.
- 러시아 군함의 필리핀 방문은 지난 1월 대잠수함 초계함 ‘애드미럴 트리뷰츠’ 등 함정 2척이 입항한 이후 3개월 만에 또다시 이뤄짐.

라. 중·일 관계

2017. 4. 19.

■ 中, 日자위대 전진배치 검토에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영향”(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도발을 '무력공격 절박사태'로 규정하고 자위대를 전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데 대해 중국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힘.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자위대 전진배치 검토와 관련, 한국 외교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 문제에 관해) 일본 동향과 관련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며 “일본의 행위가 한반도 지역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한국 측 입장에 동의함.
- 루 대변인은 “북핵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동시에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한반도 정세가 고도로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에서 유관 각국은 서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함.

마. 중·러 관계

2017. 4. 19.

■ 中, 러시아의 안보리 北미사일 규탄성명 반대에 “존중한다”(연합뉴스)

- 러시아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언론성명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안보리 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러시아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힘.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이번 언론성명에 반대한 데 대해 “안보리에는 안보리만의 제의 규칙이 있고, 문제 처리 방식이 있다”고 답함.
- 루 대변인은 “이 규칙에는 실질적으로 비공개인 비공식 논의도 포함한다”며 “내가 알기로는 안보리 회원들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 담화를 발표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4.17	미 하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미국의소리)
		HRW 서울사무소 설치 “유엔과 협력 강화”(자유아시아방송)
	4.19	안보리, 인권회의 열어 북한인권 규탄(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내부동향		
북한인권 남한동향	4.19	통일부, 가해자 몽타주 등 北인권침해 기록 법무부 이관(연합뉴스)
	4.20	‘北인권 법적 책임자 규명하자’...법무부 자문단 출범(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대북지원	4.17	美민간단체, 17억원 상당 의약품 대북지원...올해 처음(자유아시아방송)
	4.19	덴마크 NGO, 북 함경북도 수도 개선지원(자유아시아방송)
		국제적십자, 올해 대북 지원 예산 600만 달러 책정(미국의소리)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4. 17.

■ 미 하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미국의소리)

- 미국의 하원의원들이 지난 6일(현지시각) 2004년 처음 제정해 5년 주기로 연장해온 북한인권법을 다시 연장하기 위한 재승인 법안을 발의함.
- 로스 레티넨 미 하원 중동·북아프리카 소위원장, 엘리엇 앵겔 하원 민주당 간사, 테드 요호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브래드 셔먼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이 이 법안에 서명함.
- 레티넨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북한 체제로부터 도망쳐 나온 탈북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함.

■ HRW 서울사무소 설치 “유엔과 협력 강화”(자유아시아방송)

-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올해 초 등록을 마친 휴먼라이츠워치 서울사무소는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서울유엔인권사무소의 활동에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 로버트슨 부국장은 휴먼라이츠워치가 서울사무소를 개설하면서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자 처벌 문제를 조사하는 서울유엔인권사무소와 더욱 협력을 증진할 것이고 지금까지도 긴밀하게 협력해 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심도 있게 협력할 것이라 발언함.

2017. 4. 19.

■ 안보리, 인권회의 열어 북한인권 규탄(자유아시아방송)

- 안전보장이사회는 17일 뉴욕본부에서 인권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 침해 상황을 비판함.
- 그 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인권과 안보는 별개라는 이유로 개최를 반대해 오다 며칠 전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서면서 회의 개최가 가능해짐.

- 인권이 세계 평화와 안보의 일환이라는 데 뜻을 모아 열린 이날 회의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전세계 인권 상황을 두루 논의하며 특히 북한의 열악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적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북한 정권을 강력히 비판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 특이사항 없음.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7. 4. 19.

■ 통일부, 가해자 몽티주 등 北인권침해 기록 법무부 이관(연합뉴스)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는 올해 1월부터 모은 인권 침해 기록을 20일 법무부로 처음 이관한다고 19일 밝힘.
- 이번에 이관하는 기록은 기록센터가 1~3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한 253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임.
- 강제 북송과정 및 북송 이후 조사기관에서의 인권 침해, 구금 시설에서 가혹 행위, 재산몰수, 강제 낙태 등의 사례가 담김.

2017. 4. 20.

■ ‘北인권 법적 책임자 규명하자’...법무부 자문단 출범(연합뉴스)

- 법무부가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의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위한 법적 쟁점을 다루는 ‘북한 인권 법률자문단’을 출범함.
- 법무부는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자문단 위촉식을 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힘.
- 자문단은 국내외 형사법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됨.
- 자문단은 북한 인권 상황의 현실을 조망하고 북한 체제에서 자행된 불법행위의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적 쟁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 특이사항 없음.

5. 대북지원

2017. 4. 17.

■ **美민간단체, 17억원 상당 의약품 대북지원…올해 처음(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인도적 의료지원단체인 아메리케어스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북한에 미화 150만 달러(한화 17억원) 상당의 의약품과 구호용품을 지원함.
- 이 단체의 도나 포스트너 대변인은 지난 14일 이메일을 통해 RFA에 “지난 2월에 보낸 미화 15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용 의약품 8t이 북한에 도착했다”고 밝힘.
- 포스트너 대변인은 이번 지원품에는 호흡기약과 당뇨병약, 진통제와 비타민제, 의류 등이 포함됐으며 평양과 사리원, 평성, 남포 등 6개 지역의 병원과 진료소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함.

2017. 4. 19.

■ **덴마크 NGO, 북 함경북도 수도 개선지원(자유아시아방송)**

- 미션 이스트 관계자는 덴마크 정부로부터 대북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미화 약 5만6천달러를 지원 받아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함경북도 무산시와 연사군의 수해 지역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고 19일에 밝힘.
- 무산시의 이 지역 400여 가구와 유치원과 학교 두 곳의 수도 시설을 개선했으며 연사군에는 상하수도 시설을 새로 만들어서 수해로 집을 잃은 120여 가구에 깨끗한 물이 들도록 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함.

■ **국제적십자, 올해 대북 지원 예산 600만 달러 책정(미국의소리)**

- 국제적십자사 IFRC는 18일에 올해 대북 사업 예산으로 미화 60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힘.
- 그웬돌린 팡 국제적십자사 베이징 사무소장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도 북한에서 보건과 재난 대비, 식수 위생 등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함.

- 북한 조선적십자회와 협력해 지역사회가 재난에 대비하고 근본적인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